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356호 【루게 제 24769호】 주제 103 (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승리의 신심드높이 올해전투목표들을 무조건 점령하자

년간계획 빛나게 완수, 1호생산계획개건공사 완공

은 나라 방방곡곡에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동원적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속의 골지의 세멘트생산기지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창조와 위훈의 새 소식을 전해지고있다.

건설에서 새로운 변영기를 열어놓을 데 대한 당의 전투적노고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반아안고 생산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상원의 미더운 로동계급은 정초부터 일터마다에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어 높이 새운 년간 세멘트생산계획을 기한전에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을 모르는 이들은 현행세멘트생산을 계속 다그치는 동시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방대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방대하며 우리의 앞길에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실수려 중요대성건설장들을 편이 찾아주시며 건설의 새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로온 변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지도소식들을 온 한해 끊임없이 접하면서 상원의 로동계급은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대고조 전투장들에 보내줄 불타는 열의에 넘쳐 분발하고 또 분발해나갔다.

매달 계획수행은 물론 새로운 증산과제들이 나설 때마다 이들은 전투의 어려운 시기 1만의 강대만 더 있었으니 나라가 허리를 펴고있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장성의 로동계급이 떨쳐일어나 천리마속도를 창조하였다면 오늘날 새로운 조선속도창조투쟁의 맨 앞장에는 마땅히 자기들이 서야 한다는 비상한 자각과 의지를 천백배로 가다듬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원들이 함께 단원씩 맡아 생산현장에 내려가 대중과 교락을 같이하면서 로동계급의 애국충정을 활화산마냥 총폭발시켜 세멘트생산의 비약적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집중적으로 편속해나갔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련합기업소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들이 말로써가 아니라 완강한 실천과 자랑한 실적으로 조국의 투쟁선전에 참담계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열의밑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다 바치고있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질 좋은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중앙조성실의 조성자들은 부가물의 첨가비중을 높이며 전반적인 공정들의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세멘트의 질을 높이면서 생산량을 부쩍 늘일수 있게 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조합원로직장과 원료직장, 조성직장과 보수직장,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이 1호생산계획개건공사에 한걸음도 떨치지 않고 단원들 사이에 방대한 량에 달하는 작업과제들을 성과적으로 해체하고 시공전에 진입하였다. 이 개건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조성실의 조성실들의 능력을 증진보다 훨씬 높이며서 그 만가량, 만부하를 보장하여 세멘트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수 있게 되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떨쳐일어나 나뒀고 밤이 따로 없는 전투분부 및 부속공정들을 한주일 남짓한 기간에 해체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하여 많은 량의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부원료를 보다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조합원로직장과 분관직장, 조성직장과 보수직장,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이 1호생산계획개건공사에 한걸음도 떨치지 않고 단원들 사이에 방대한 량에 달하는 작업과제들을 성과적으로 해체하고 시공전에 진입하였다. 이 개건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조성실의 조성실들의 능력을 증진보다 훨씬 높이며서 그 만가량, 만부하를 보장하여 세멘트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수 있게 되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현저지도사적이 깃들여있는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애국헌신의 한평생을 더욱 깊이 체득시켜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당위원회에서는 기업소에 여러곳의 장군님의 령도업적에 대한 가슴뜨거운 자료를 가지고 정지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지도를 받은 인차대기실과 철산현을 더 잘 꾸리는것과 함께 기기에 위대성교양자료들을 갖추어 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이밖에도 사리현시 미곡협동농장, 용천군 신암협동농장, 함주군 통동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촌경리부문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도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인민들의 먹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진걸을 고집 또 고집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되새겨주는 사상교양사업은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양말공장, 두단외리공장, 평양말가루공공장을 비롯한 각지의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신의 혁명적 투쟁의 길을 이어가 시켰습니다. **2. 8적동청년관람 초**

주제 99(2010)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방의 추위로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무산생산련합기업소를 찾으시어 당의 위업을 앞장서 받들어온 선봉부대였기 앞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기라는 큰 마음을 안겨주셨다. **허 일 무**

대중의 심장을 끝까지 움직이는 정치사업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현저지도사적이 깃들여있는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애국헌신의 한평생을 더욱 깊이 체득시켜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2. 8적동청년관람 초**



질 좋은 편직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애국편직물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생활력 힘있게 과시

자강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제에 관한 데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5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 자강도에서 일군, 난세, 축산, 누에고치 등 농업생산에서 자랑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2. 8적동청년관람 초**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고 나라의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결실이며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생활력의 과시이다. **2. 8적동청년관람 초**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가한 도의 수백명 분조장들은 농촌핵심, 농촌의 초급지회선으로 보내주시고 인생의 값있는 영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힘입어 농업생산과도 보답할 줄 아는 충정의 일념으로 농사일에 지혜와 열정을 강기로 쏟아부었다. 자강도 농업농장 농산제 3작업반 5분조장 한용남동무는 분조의 만행철이 이신적의 실천적모범으로 분조원들을 세우고 로력조직과 작업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일군들의 열풍생산을 적극 이끈 선봉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조직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2. 8적동청년관람 초**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고 중자선과 품종배치를 잘하고 많은 소의 특성을 생산하여 필지별의 수확을 높여내어 내내 애국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2. 8적동청년관람 초**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한 자랑이고

안주철연물공장에서

안주철연물공장에서 전력생산을 추켜세우는데 절실히 필요한 철연물생산을 늘이고있다. **2. 8적동청년관람 초**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신민주항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새겨진 전투적 결속의 배고동수리함을 높이 올리면서 첫 전투에 진입하였다. **2. 8적동청년관람 초**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석돌생산기지에 내려치는 혁신의 기상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성광산에서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돌출물높이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나갔다. 특히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추세에 맞게 각종 부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절감적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1호생산계획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특히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조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투쟁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뒀다.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조성직장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열속에 뛰어 들어가 불탄을 성과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산의 동물을 순간도 멈추지 않는 모범을 보인 채로 작업에 임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돌출물높이

이곳 참모부에서는 원료, 연료보장장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

대판군의 한 노동자처녀가 잃었던 얼굴을 다시 찾기까지의 8년세월에 바쳐진 사랑과 정성에 대한 이야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흉내범수도 만들수도 없고 영원히 가질수도 없는 귀중한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뜻밖의 사고로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고통을 겪던 노동자처녀를 8년세월 정성다해 치료하여 끝끝내 얼굴을 찾아온 꼬마운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로 대신하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분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상처가 얼굴에 비친다면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 비끼는 얼굴은 아마

도 그 사회의 판심박에 밀려난 불행한 사람들의 운명일것이다. 산골짜기에 사는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노동자처녀가 19살 꽃나이에 자기 얼굴을 형제도 없이 잃은것이 아마도 불행중의 불행이 아닐수 없었다.

우리는 다시 찾은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은 처녀 림송미를 보면서 생각하였다. 미용수술이 제일 값비싼 수술의 하나로 되어있는 자본주의사회라면 수백만금을 들여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낼수 있을지 언정 인간의 심정속에서 우리나오는 처럼 못 리였이 밝고 밝은 미소를 살수 있을것인가. 처녀의 얼굴에 비친 구긴살없는 미소, 그가 흘리는 꼬마운의 눈물이아마도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들여다볼수 있는 거울이 아니라.

않고 그것을 컴퓨터프로그램화하는 사업에 달려들었다. 그 문제를 놓고 여러 컴퓨터전문가들과 토의를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미용의과학이 너무 생소한 분야인것으로 하여 결실이 없었다.

그가 몹시 안타까와하고있을 때에 림현단동무에서 치료를 받고 병을 고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박사원생이 그를 찾아왔었다. 그의 격정격리를 알게 된 박사원생은 자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다.

《저야 선생님의 새 수술방법의 덕을 직접 입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완성된 프로그램은 송미를 비롯한 미용의과학자들의 치료를 적극 진척시켰다. 어느날 병원초급당위원회에서 림현단동무를 찾았다.

《동무가 하는 치료연구사업에 필요할것같이 동무는 다른 나라들과의 의학교류사업에 참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림현단동무의 마음속에 고쳐진 감사의 정을 무슨 말로 다 할수 있오랴. 철만이나 향한 걸음걸음에서 자신의 지식의 빈곤을 뼈저리게 느끼며 더 많은 지식을 배울것을 내심 갈망하던 그였다.

말없이 눈을 감아버리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아, 꼬마운 어머니당여! 조국이여! 내 그대를 위해 무엇을 아껴라!)

여러달에 걸친 다른 나라에서의 의학교류사업은 끝나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의 집은 온통 미용의과학분야의 도서들로 꽂 차있었다.

림현단동무는 여러가지 기구와 약물을 창안하여 새로운 방법에 의한 수술기간을 종전보다 훨씬 줄였으며 송미의 치료에서 제일 난문제였던 퇴원 코수술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의 얼굴을 구조적으로 완성시켜주었다.

우리의 의학은 또 한걸음 크게 내졌었다. 우리 나라 미용의과학의 개척자의 한사람인 림현단동무의 스승이었던 교수 박사 정원걸선생은 송미의 수술결과를 직접 보고 이렇게 말했다.

《현단선생에게 우리 미용의과학의 새 세계를 부탁하오.》

8년세월 림현단동무는 낮에 밤을 이어 자신을 초탈처럼 붙들었다. 그는 언젠 한 날 자기 침대에 편히 누워 잔잔이 없다. 그에게 있어서 병행하는 문 집이었고 환자들은 한 가정의 식솔들이었다.

어느날 오후 림현단동무는 입원실복도를 지나다가 낮이든 사람이 송미의 입원실로 들어가는것을 보게 되었다. 뒤모습은 분명 남편이었다. 그를 따라 입원실로 들어선 림현단동무의 귀에 송미가 《삼촌!》하고 반말을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해와 뜻밖의 부딪힌 정일남동무는 먼 구슬러운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하오 송미, 송미 하기에 한번 만나보고 하시오.》

그러나 송미와 정일남동무는 이미 혈육과도 같은 관계였다. 송미에게서 시로물만 안겨주고 밖을 나서서 남편을 림현단동무는 눈물이 글썽해서 비배했다.

만수대창자사 공에서 나온 정일남동무는 안해의 치료연구사업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이며 또한 평가자이기도 했다. 《아직 멀었소. 또한 언제든 사랑의 눈, 고 임을 만들기가 제일 힘든데 산 얼굴을 만드는

일이야 더 심사숙고해야지.》라고 하는 남편의 평가가 림현단동무에게는 큰 힘으로 되곤 했다.

수도에서 수백리 떨어진 산골에 집이 있는 송미는 1년 치고 반년이상은 병원생활을 해야 했다. 그때마다 림현단동무의 은 가족은 송미를 자기 식구처럼 여겼다. 림현단동무의 어머니 김명서로인은 송미를 손녀로 여겼고 림현단동무의 부부는 딸처럼 보살펴주었다. 입원생활을 마친 송미가 보양생활을 림현단동무의 집에서 하는것은 어느때 메사로운 일로 되었다. 김명서로인은 새로 생긴 손녀에게 늘 말하곤 했다.

《우리 오누이자식은 이 흠어머니보다 고마운 품속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단다.》

림현단동무의 동생인 김일성종합대학교원 림현기동무때 부모도 송미를 조카로 삼았다. 지난해 가을 당의 은조로 통통내 거리에 높이 솟은 김일성종합대학교육사립에 입학한 림현기동무와 림현성녀성은 입원치료를 끝낸 송미를 데려다 주었다.

《이번엔 우리 집에 가있자꾸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행복의 집이란다.》

그집에서 송미는 율해 설명절을 림현단동무의 일가친척들과 함께 쇠었다. 치료에 대한 신경성느라기도 한 처녀를 끝내 단장시켜 생활을 못했다고 믿안해하며 품어주는 마른한 새옷을 내놓는 림현단동무당에서 송미는 흐느껴울었다.

《고맙습니다.》

8년세월 자기를 위해 심혈을 다 바친 현단동무를 어머니라고 부르고있는 열망이가슴속에 품어안겼지만 처녀는 이 한마디 말밖에 더 할수 없었다. 그를 품에 꼭 안고 림현단동무는 마음으로 말했다.

(나도 나도 사회주의의 딸이란다. 당과 사회주의제도의 품에서 나도 자라고 나도 자라니 우리 모두 한가정, 한식솔이란다.)

대판군에 사는 림송미의 어머니는 자기 딸의 얼굴을 되찾아준 꼬마운 은인의 얼굴을 아직 한번도 본적이 없다. 대판양의 처녀로물까지 8년세월 병원의 특별찬자로 등록하고 치료연구사업을 병원적인 사업으로 떠밀어두고 림현단동무를 전구과장직, 기술사제직으로 떠밀어준 심일철, 김영진동무들을 비롯한 조선적직자종합병원 일꾼들과 의료일꾼들. 헤어살방이 많은 그 은인들모두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어머니는 저 멀리 깊은 산골마을에서 그저 눈물만 지고있다.

위대한 천리마시대에 화상당한 한 소년들을 위하여 함흥의 보건일꾼들이 발휘한 고결한 소행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우리의 사회주의 대가정의 기조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으며 인간중시, 인간사랑의 주제사상을 체질한 사회주의보건일꾼들의 정열을 수백수천이나 태어나게 해주었다.

우리 당과 사회주의제도는 오늘날 또 한명의 참다운 보건일꾼을 훌륭히 키워 인간생명의 기사로 인민앞에 내세워주었다. 다시 찾은 얼굴에 눈물을 짓고 목매어 외우는 처녀의 김구의 인사, 그것은 림현단동무와 같은 선진자로 보건일꾼들이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역세게 떠날것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우러러 이 나라 인민이 삼가 드리는 찬양은 꼬마운의 큰결정이었다.

산길에 우리 염속히 서 본다.

만약 자본가라면 공장노동자를 위한 그런 결을, 그런 심정이 단 한순간일만 있을수 있으랴. 황금만능세상의 기업주라면 로동제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몇푼의 돈을 던져주고 당장에 해고지를 내렸을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 아닌가.

조선적직자종합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송미가 림현단동무에서 첫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리촌일동무였다. 수술자리가 깨끗이 나아야 또 수술할수 있다고, 그 기간이 얼얼한 걸릴것이라는 림현단선생의 이야기가 송미에게서 들은 그는 말했다.

《얼달? 너무 길구나. 병원에선 현단 선생이 담당하시지만 여기에선 내게 내 의사다.》

그는 공장노동자료양소 료양권을 꺼내올었다.

《수술결과를 좋게 하려면 온천욕이상 없디더라. 매일 당장 가거라.》

초급당비서가 쥐여주는 료양권을 송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였다. 그 료양권에 또 박목보 의적인 자기 이름 세글자가 눈물에 가리워 잘 보이지 않았다. 목에인 황태신 아버지가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당비서동지!》

송미는 이렇게 신선온천부근에 있는 료양소로 떠나갔다. 송미의 휘사담당을 맡은 료리사에게는 공장 초급당비서가 직접 작성한 식사지표가 전달되고 부식물보장을 후방부면에서 따라세우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초급당비서의 가정에서도 송미의 명치로 첫첫째가는 판심사로 되어 리촌일동무의 안해는 자기가 심고 가꾼 터 밭담새 닭담 당가지까지의 부식물을 료양소로 보내주었다.

그로부터 두달이 지나 송미가 다시 평양으로 올라왔을 때 림현단동무는 어떻게도 하였다.

《왜 벌써 왔어?》

《우리 당비서동지가 수술자리를 먼저보고 나서 **〈이젠 수술을 또 해도 되겠다.〉**라고 했습디다.》

송미의 대답을 듣고 림현단동무는 수술 부위를 살피고였다. 정말 경과가 놀랄만큼 좋웠다. 모든 사연을 안 림현단동무는 가슴이 젖어 들었다. 그는 송미를 껴안았다.

《얼 위해 마음쓰는 사람이 우리 의료일꾼들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앞에는 아직 만나 본적 없는 대판양의 한 당일꾼의 모습이 우뚝이 떠오르고있었다. 송미의 행복담을 지켜 그 당일꾼도 그의 곁에 함께 있는것이였다.

지난 8년세월 리촌일동무는 대판양에서 림송미의 의사가 되고 간호원이 되어주었으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주었다. 공장중업원명단은 송미의 이름이 여전히 울리고있는데 온 공장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속에 살았다.

헤마당 향양에 왔이는 날이 더 많았던 송미는 보통 생활을 병원에서 의료일꾼들과 환자들의 측복속에 최근 하였다.

그러던 어느때 그의 생일날이였다. 림현단과 가족들, 미용외과 의사, 간호원들, 환자들이 모여 송미를 축하해주고있는 데 리촌일초급당비서가 입원실로 들어왔다.

《송미야, 내가 늦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의 이마는 땀으로 축축 젖어있었다. 림현단동무가 송미의 생일이야 우리가 어찌든 해주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결을 하였는가고 하자 그는 늘 선생님들에게만 맡겨졌듯이 미안했다고, 송미의 이번 생일을 어떻게 하나 자기 손으로 쇠여주고싶어 왔다고 하는것이였다.

이날 송미에게는 친혈육이라고는 한명도 없었지만 그는 온 세상을 다 안은듯이 기쁘고 즐거웠다.

생일은 누구에게나 기쁘고 즐겁지만 얼굴에 심한 화상을 당한 후 처음으로 맞은 생일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슴아웠던가. 부모의 생기가 담긴 푸짐한 음식상에 가족친척들이며 동무들이 뿔뿔이 있지만 송미는 옷방에서 모포를 뒤집어쓴채 나를 밤을 안했다.

취제가 끝난 후 우리는 얼굴을 다시 찾은 림송미를 그을 위해 8년세월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림현단과 리촌일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친들 담으로 하였고였다.

그러네 모든 수악하였다. 림송미는 일에서 혁신자가 된 다음 사진을 찍었다고 하였고 림현단과에서는 송미의 얼굴을 그려 아름답게 꾸며주었는데 이제 또 저의 생일을 잊어버렸으면 하는 기막힌 생각이였다.

그러던 송미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된 생일을 다시 찾은것이였다. 있을수 없는 하루가 저물어간 길은 밤에 송미는 가슴지리던 그 생일날에 모여왔던 동무들을 그려보며 속삭였다.

《오늘이 바로 나의 생일이야. 가장 기쁘고 행복할 생일!》

난 언제든 불행하지 않아. 내 생일은 더이상 서러운 날이 아니야. 평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일을 알고 축하해주고 그러는 사람들 내 생일을 위하여 초급당비서며 단장을 달려왔어.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처녀가 또 있을까!》

침대에 놓인 수많은 기념품들을 어루췌던 그의 손이 눈부신 화장품에 가닿았다. 리촌일초급당비서가 마련한 생일기념품들이였다.

송미는 믿고있었다. 머지않아 그 화장품으로 자기 얼굴을 아름답게 단장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 노래를 부르고싶었다. 오늘 생일 축하하러서 불렀던 노래, 초급당비서며 림현단과장, 의사, 간호원들과 목청을 합쳐 함께 불렀던 《세상에 부럼없으라》 노래를.》

그 아름다운 밤에 송미는 세상이 가장

행복한 처녀로 다시 태어나고있었다.

공장 초급당비서 리촌일동무와 중업원 처녀 림송미사이엔 맺어진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초월하는 뜨거운 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한두마디만 더 하려고 한다.

한 대학에서 도시실장으로 사업하는 안해 김송희녀성이 도사구일로 평양출장을 떠날 때면 리촌일동무는 어김없이 전소리를 걸어 하였다.

《송미한테 꼭 들려보요.》

《다 알아요. 송미야 이제 우리 집식구가 되셔서 없잖아요.》

《아무렴, 당일군의 안해야 웅당 그레 야지.》

이런 당비서를 누군들 따르지 않으며 스텝없이 달려가던지 않을수 있으랴. 햇빛이 넘치는 아침 풍향으로의 출근길에 오른 리촌일초급당비서의 주위에는 항상 많은 로동자들이 모여들곤 한다. 무슨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고 가정잡사를 터놓고 하고 인종깊고 유포아적인 그의 말에 그저 좋아 귀가울이는 모양은 향기로운 꽃이 벌들어 날아든 모습같기도 하고 자로운 어머니주위에 자식들이 오묘조묘 매여달린 광경같기도 하다.

리촌일동무는 철산공의 팡부가정에서 성장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우리 나라야말로 료동계급의 세상이라는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야 로동자가 행복에서도 영광에서도 첫자리를 차지해야지.》

이것이 료동계급출신 당일꾼인 리촌일동무의 당시일정거였다.

하기에 그는 율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었을 때 원수님께서 지난해에 훌륭하게 태어난 어머니님께 놀이 평가하신 대판양의 어머니 정선영의 남편이 바로 우리 공장 중업원이라고 기대에 말없이 서있는 평범한 선민공에 대하여 자랑담이 말슴드리었으며 원수님을 모시고 공장일꾼들이 사진을 찍게 된 영광의 자리에서도 한 열에 서있던 혁명사적교양실 강사를 제대군인강사로 원수님께 아뢰고 그 자기 자리를 내어 그이의 바로 곁에 세워주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한성토록 못 있을 영광의 시각이 흐른 뒤 제대군인강사가 자기의 다음사리에 서서 자신을 찍은 초급당비서에게 미안함을 금치 못해하자 리촌일동무는 《제대군인강사인 동무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선 선전이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사진을 찍는것보다 더 기쁘요.》라고 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자연의 햇빛에는 그들이 있어도 우리 당의 따뜻한 사랑의 빛은 인간의 깊은 마음속까지 비쳤다. 그 빛은 선민공의 마음, 그늘진 심정에 더 밝고 따스하게 비쳐드나.

우리 원수님께서 잘못된 인생길에 들어섰던 부모님을 청춘사랑을 어머니손로로, 어머니마음으로 따스히 품어주고 행복한 가정까지 이루어준 금아군 가진로로동자구의 평범한 녀성당일군에게 초급당비서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써보달리 친필이 오늘날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무려뿐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이런 진실하고 열렬한 인간사랑을 지닌 어머니당일꾼들이 지켜선 일터와 마을들이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이루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 인민을 대하고 사랑하는 이런 당일꾼들을 굳게 믿고 이 땅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강성국가건설에 피와 땀,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치고있다.

이렇듯 자애로운 눈빛, 따스한 손로로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는 꼬마운 료동당의 품속에서 우리모두가 살고있다.

* * *

림송미에게는 수취가 하나 있었다. 이름과 같은, 전화번호로도 부족한 수취이다. 같이 입원생활하는 동급동무 처녀로부터 당중앙위원의 직급을 이르기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가슴이 찢어진 듯 수줍을 펼쳐보지만 산골군의 한 공장의 화상환자처녀가 자못 유명한 인물이라는 생각이였다.

취제가 끝난 후 우리는 얼굴을 다시 찾은 림송미를 그을 위해 8년세월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림현단과 리촌일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친들 담으로 하였고였다.

그러네 모든 수악하였다. 림송미는 일에서 혁신자가 된 다음 사진을 찍었다고 하였고 림현단과에서는 송미의 얼굴을 그려 아름답게 꾸며주었는데 이제 또 저의 생일을 잊어버렸으면 하는 기막힌 생각이였다.

그러던 송미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된 생일을 다시 찾은것이였다. 있을수 없는 하루가 저물어간 길은 밤에 송미는 가슴지리던 그 생일날에 모여왔던 동무들을 그려보며 속삭였다.

《오늘이 바로 나의 생일이야. 가장 기쁘고 행복할 생일!》

난 언제든 불행하지 않아. 내 생일은 더이상 서러운 날이 아니야. 평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일을 알고 축하해주고 그러는 사람들 내 생일을 위하여 초급당비서며 단장을 달려왔어.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처녀가 또 있을까!》

침대에 놓인 수많은 기념품들을 어루췌던 그의 손이 눈부신 화장품에 가닿았다. 리촌일초급당비서가 마련한 생일기념품들이였다.

송미는 믿고있었다. 머지않아 그 화장품으로 자기 얼굴을 아름답게 단장하게 되리라라는 것을.

《그 노래를 부르고싶었다. 오늘 생일 축하하러서 불렀던 노래, 초급당비서며 림현단과장, 의사, 간호원들과 목청을 합쳐 함께 불렀던 《세상에 부럼없으라》 노래를.》

그 아름다운 밤에 송미는 세상이 가장

너도 나도 사회주의의 딸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8년전 수도의 발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뜻밖에 부딪친 생활의 심각한 물음앞에서 섰대 대답 못하고 고민하는 때가 있던 한다. 깊은 생각에 잠겨 퇴근길을 걷고있는 조선적직자종합병원 의사 림현단동무의 심정이 그러하였다.

며칠전에 패에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당한 처녀가 입원하였다. 눈가풀과 입술, 고가 다 타버리고 불이머 락 등이 솟았어리 처럼 되어버린 얼굴 아닌 얼굴이었다. 그래서 처녀는 두눈만 내놓고 온 얼굴을 가리우고 집안에서 숨어살다싶이 하고있었다.

스무해 가까이 미용수술을 해온 림현단동무였지만 대판군의 한 공장 로동자라는 19살 난 처녀 림송미처럼 이마를 제외한 얼굴은 전혀 미용이었던 처녀는 처음은 처음이었다. 림현단동무가 알고있는 이 분야의 현제술로는 치료불가능, 원상회복불가능이라는 절망적인 답이 나왔다.

중양병원의 유명한 의사선생님을 믿고 찾아온 처녀는 애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었다. 처녀의 그 눈빛이 이밤도 그당따라서는것만 같이 친근단군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앞으로 활기에 넘친 처녀들이 마주 왔다. 시름이런 아예 없는듯 할때마다 웃고떠드는 처녀들의 모습은 수도의 발기처럼 밝히는 불장식에 환히 빛나고있었다.

(저들결에 대한처녀는 정녕 다시 실수 없단 말인가? 환자의 마지못해명명인 의사까지 포기한만큼 처녀는 삶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던 그 책임은...?)

철사 사회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하 데도 의사의 량심은 한 불행한 처녀의 삶을 구원 할 책임을 일성토록 치레에 따를울것이었다. 치료를 시작한다면 한생을 바쳐야 할수도 있겠다. 용단을 내리지 못한채 로 림현단동무는 며칠째 이렇게 고민을 거듭하고있었다.

집에 들어서서는 림현단동무를 어머니가 맞이하였다.

《그 처녀가 그렇게 심하냐?》

의사인 딸을 각별히 사랑하는 김명서로인은 딸의 얼굴빛만 보고서도 많은것을 짐작하곤 하였다.

《자신이 없어요. 아마 일생을 바쳐도 못 고칠것 같아요.》

딸의 맥물린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야 의사가 아니라. 전쟁때 최선군의 들은 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는데...》

어느때에는 메사롭게 들리던 어머니의 그 말이 그 시간 림현단동무의 가슴속에 은 간조로병형의 염속한 목소리로 무겁게 파고들었다.

(의사! 나는 왜 의사가 되었겠나?)

림현단동무의 부모는 전쟁로병형에군인들이었다. 최선의 용감한 권의들은 생명이건강에도 달렸던 그의 아버지를 살려놓고 간조로병이었던 어머니도 동지들을 위해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쳤다. 전후에 어머니는 아버지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났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정을 이루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 오누이는 아버지없는 설음, 품이 불연한 영예군인이머니와 함께 사는 피로움을 모르고 자랐다. 오히려 전쟁로병형에군인가정의 아들딸이라고 학교에서 마을에서 도 그들을 각별히 위해주었고 나라에서는 대학공부를 시켜주었다.

꼬마운 제도, 꼬마운 사람들을 위하여 무슨 직업은 선택할것인가 하고 생각한 끝에 림현단동무는 우리 제도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것을 위하여 복무하는 일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제도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것, 그것은 인간이었다.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사직업이아마도 가장 성스럽고 보람찬 데국지의 직업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던것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몰음에도 꽃이 핀다는 말이 있지 않나. 하룻머 나야 대학공부를 하고 학위까지 받은 의사가 아니냐.》

가멸한 전화의 날 수많은 동지들을 죽음의 고비에서 필사적으로 구원한 옛 호신군호인의 언덕 손이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어머니세대가 자기 생명이자 바쳐가며 전우들을 살려왔다면 나는 일생을 바쳐서 너도 송미의 얼굴을 되찾아주리랴.)

이런 결정을 안고 림현단동무는 스스로 송미의 운명을 책임졌다.

송미는 그에게 절절히 호소했다.

《선생님, 우선 눈부리 않게 해주세요.》

당시 송미는 눈주위의 피부가 타서 눈알이 다 드러나고 눈물이 쉬임없이 흘러내렸다. 눈가풀과 보호가 없이 오래동안 지속되면 실명이 올수 있었다.

당정 치료할것은 눈만이 아니였다. 높은 열에 꼬마루 완전히 녹아붙어 처녀는 숨쉬기 가빠했다. 입도 곡수 한리조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젖어들어 밥도 먹을수가 없었다. 밥 한끼 먹는데도 몇시간

걸려야 했다.

눈, 고, 입!

어느 하나 소홀히 할것이 없었고 선후처를 가를수도 없었다. 림현단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꾼들이 송미에 대한 치료의 첫단계로 삼은것은 이 세가지 고초를 살수 있겠지 해결하는것이였다. 그들은 피부이식술의 방법으로 눈가풀을 만들었으며 쿠폰멍을 어느 정도 넓히고 입도 다소 크게 벌릴수 있게 해주었다.

첫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송미네 공장의 지배인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어디 보자, 송미야!》

송미의 얼굴을 본 지배인의 눈가에 실망의 빛이 어렸다.

《눈, 고, 입이 단번에 생겨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는 지배인에게 입원실환자들은 의사들의 수고에 대하여, 이번 수술결과를 평가 생겨 처음인 기적같은 성과라고 이주동성으로 이야기해주었다. 송미의 육체적고초를 덜어준것만도 얼마안찬 일인가를 지배인은 잘 알고있었다. 그는 림현단동무에게 머머주어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림현단동무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치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산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수술은 부부수술처럼 한두차례의 수술로 끝나는것이 아니다. 더우기 송미와 같이 심한 화상환자인 경우 수술이 몇십번이 되었는지 아니면 몇백번이 되었는지 의사들보다도 불가능할수 없었다.

실지로 송미는 지금까지 8년동안에 무려 100여차례에 걸치는 크고작은 수술을 받두사시간도 아니고 여러 시간, 한두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긴장한 수술양은 림현단동무에게 힘겨운 정신육체 부담을 지어주었다. 끼니까지 건너며 저녁 늦게까지 온종일 수술을 한 날이면 결을 움직임 힘까지 없어 퇴근할 생각도 없고 그냥 쓰러져 잠들었다. 그런 때면 입원환자들도 발괄결음으로 복도를 지나가곤 했다.

그러나 긴장한 수술전투였다 림현단동무를 더 괴롭히는 고초는 미용수술의 원단에 높아가자 못하면 송미의 치료가 더이상 불가능하다는것이였다.

피와 살을 바쳐서 뿔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성과 헌신만으로 해결할수 없는, 세계적으로도 완전한 정복하지 못한 미용의과학의 최첨단의 평역을 돌파해야 하는 심각한 현실이 림현단동무의 앞길을 가로막고있었다.

이 극한점에서 림현단동무가 얼마나 힘겨운 선택의 결정을 내렸겠는가 하는대 대하여 다 이야기할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의학과학자도 아닌 평범한 의사가 하루에도 수십명의 환자들을 대상하고 수술도 진행하면서 가정도 돌보아야 하는 40대의 녀성이 혼자서 미지의 최첨단세계를 개척할 선구자가 될 작음을 품은것이 그 어떤 명예나 학위학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송미와 같은 평범한 인간들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보건일꾼의 의무감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의학이라고 왜 세계의 명마루에 올라갈지 못하겠는가 하는 세 세대 지식인의 자존심으로부터 출발한 용단임을 강조하고자이다.

오늘의 시대는 보건일꾼들에게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지극한 정성과 함께 자기 분야에서 세계패권을 쥘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요구하고있다. 림현단동무가 스스로 선택하고 8년세월을 헤쳐온 그것은 당과 국가의 은혜로 의학공부를 하고 인간생명의 기사가 된 우리의 보건일꾼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생활의 진리를 이야기 해주고있다.

림현단동무는 자기의 고집어린 탐구와 확증으로 후날 다른 보건일꾼들이 지름길로 삼을수 있는 리정표를 하나하나 세우며 간고하게 전진해나갔다. 연구사도 실험실에서 1년, 2년세월을 보낼 일이 아니였다.

《내가 빨리 성공하지 못하면 송미의 처녀시절이 병원침대에서 다 흘러갈수 없어요.》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딸을 만나러 온 어머니에게 림현단동무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우리 나라 미용의과학에서 하나의 큰 전진이라고 할수 있는 새로운 수술방법을 도입해가던 나날 림현단동무는 거기에 필요한 수학적계산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의 한 녀성박사와 마주앉은적이 있다. 그 녀성박사는 처음에 림현단동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대판군의 로동자처녀의 화상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진지하고도 정열적인 이야기를 듣고 몹시 감동된 녀성박사는 제일처럼 도와나섰다. 그가 알려준 공식에 의거한 수학적계산방법으로 새로운 수술방법을 보다 과학화할수 있었다.

하지만 림현단동무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컴퓨터프로그램화하는 사업에 달려들었다. 그 문제를 놓고 여러 컴퓨터전문가들과 토의를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미용의과학이 너무 생소한 분야인것으로 하여 결실이 없었다.

그가 몹시 안타까와하고있을 때에 림현단동무에서 치료를 받고 병을 고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박사원생이 그를 찾아왔었다. 그의 격정격리를 알게 된 박사원생은 자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다.

《저야 선생님의 새 수술방법의 덕을 직접 입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완성된 프로그램은 송미를 비롯한 미용의과학자들의 치료를 적극 진척시켰다. 어느날 병원초급당위원회에서 림현단동무를 찾았다.

《동무가 하는 치료연구사업에 필요할것같이 동무는 다른 나라들과의 의학교류사업에 참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림현단동무의 마음속에 고쳐진 감사의 정을 무슨 말로 다 할수 있오랴. 철만이나 향한 걸음걸음에서 자신의 지식의 빈곤을 뼈저리게 느끼며 더 많은 지식을 배울것을 내심 갈망하던 그였다.

말없이 눈을 감아버리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아, 꼬마운 어머니당여! 조국이여! 내 그대를 위해 무엇을 아껴라!)

여러달에 걸친 다른 나라에서의 의학교류사업은 끝나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의 집은 온통 미용의과학분야의 도서들로 꽂 차있었다.

림현단동무는 여러가지 기구와 약물을 창안하여 새로운 방법에 의한 수술기간을 종전보다 훨씬 줄였으며 송미의 치료에서 제일 난문제였던 퇴원 코수술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의 얼굴을 구조적으로 완성시켜주었다.

우리의 의학은 또 한걸음 크게 내졌었다. 우리 나라 미용의과학의 개척자의 한사람인 림현단동무의 스승이었던 교수 박사 정원걸선생은 송미의 수술결과를 직접 보고 이렇게 말했다.

《현단선생에게 우리 미용의과학의 새 세계를 부탁하오.》

8년세월 림현단동무는 낮에 밤을 이어 자신을 초탈처럼 붙들었다. 그는 언젠 한 날 자기 침대에 편히 누워 잔잔이 없다. 그에게 있어서 병행하는 문 집이었고 환자들은 한 가정의 식솔들이었다.

어느날 오후 림현단동무는 입원실복도를 지나다가 낮이든 사람이 송미의 입원실로 들어가는것을 보게 되었다. 뒤모습은 분명 남편이었다. 그를 따라 입원실로 들어선 림현단동무의 귀에 송미가 《삼촌!》하고 반말을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해와 뜻밖의 부딪힌 정일남동무는 먼 구슬러운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하오 송미, 송미 하기에 한번 만나보고 하시오.》

그러나 송미와 정일남동무는 이미 혈육과도 같은 관계였다. 송미에게서 시로물만 안겨주고 밖을 나서서 남편을 림현단동무는 눈물이 글썽해서 비배했다.

만수대창자사 공에서 나온 정일남동무는 안해의 치료연구사업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이며 또한 평가자이기도 했다. 《아직 멀었소. 또한 언제든 사랑의 눈, 고 임을 만들기가 제일 힘든데 산 얼굴을 만드는

일이야 더 심사숙고해야지.》라고 하는 남편의 평가가 림현단동무에게는 큰 힘으로 되곤 했다.

수도에서 수백리 떨어진 산골에 집이 있는 송미는 1년 치고 반년이상은 병원생활을 해야 했다. 그때마다 림현단동무의 은 가족은 송미를 자기 식구처럼 여겼다. 림현단동무의 어머니 김명서로인은 송미를 손녀로 여겼고 림현단동무의 부부는 딸처럼 보살펴주었다. 입원생활을 마친 송미가 보양생활을 림현단동무의 집에서 하는것은 어느때 메사로운 일로 되었다. 김명서로인은 새로 생긴 손녀에게 늘 말하곤 했다.

《우리 오누이자식은 이 흠어머니보다 고마운 품속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단다.》

림현단동무의 동생인 김일성종합대학교원 림현기동무때 부모도 송미를 조카로 삼았다. 지난해 가을 당의 은조로 통통내 거리에 높이 솟은 김일성종합대학교육사립에 입학한 림현기동무와 림현성녀성은 입원치료를 끝낸 송미를 데려다 주었다.

《이번엔 우리 집에 가있자꾸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행복의 집이란다.》

그집에서 송미는 율해 설명절을 림현단동무의 일가친척들과 함께 쇠었다. 치료에 대한 신경성느라기도 한 처녀를 끝내 단장시켜 생활을 못했다고 믿안해하며 품어주는 마른한 새옷을 내놓는 림현단동무당에서 송미는 흐느껴울었다.

《고맙습니다.》

8년세월 자기를 위해 심혈을 다 바친 현단동무를 어머니라고 부르고있는 열망이가슴속에 품어안겼지만 처녀는 이 한마디 말밖에 더 할수 없었다. 그를 품에 꼭 안고 림현단동무는 마음으로 말했다.

(나도 나도 사회주의의 딸이란다. 당과 사회주의제도의 품에서 나도 자라고 나도 자라니 우리 모두 한가정, 한식솔이란다.)

대판군에 사는 림송미의 어머니는 자기 딸의 얼굴을 되찾아준 꼬마운 은인의 얼굴을 아직 한번도 본적이 없다. 대판양의 처녀로물까지 8년세월 병원의 특별찬자로 등록하고 치료연구사업을 병원적인 사업으로 떠밀어두고 림현단동무를 전구과장직, 기술사제직으로 떠밀어준 심일철, 김영진동무들을 비롯한 조선적직자종합병원 일꾼들과 의료일꾼들. 헤어살방이 많은 그 은인들모두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어머니는 저 멀리 깊은 산골마을에서 그저 눈물만 지고있다.

위대한 천리마시대에 화상당한 한 소년들을 위하여 함흥의 보건일꾼들이 발휘한 고결한 소행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우리의 사회주의 대가정의 기조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으며 인간중시, 인간사랑의 주제사상을 체질한 사회주의보건일꾼들의 정열을 수백수천이나 태어나게 해주었다.

우리 당과 사회주의제도는 오늘날 또 한명의 참다운 보건일꾼을 훌륭히 키워 인간생명의 기사로 인민앞에 내세워주었다. 다시 찾은 얼굴에 눈물을 짓고 목매어 외우는 처녀의 김구의 인사, 그것은 림현단동무와 같은 선진자로 보건일꾼들이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역세게 떠날것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우러러 이 나라 인민이 삼가 드리는 찬양은 꼬마운의 큰결정이었다.

꼭 다물고있었다. 여러 병원들에서 내린 치료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그의 마음을 위대 무게 하였던것이였다. 그럴수록 자기 딸을 위하여 무슨 예를 쓰고있는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공장일꾼들을 대하기가 민망하였다.

어느날 저녁 그구 귀죽은듯 중요한 윤안일이 졸담대를 태우고있는데 리촌일동무가 대문앞에 들어왔다.

《단장동무, 송미를 중앙병원에 보냈습니다. 평양에 있는 조선적직자종합병원에서 송미를 데리고 오라는 연락이 왔습디다.》

림익남동무는 고개를 돌 령 송미가 대답이 없었다. 담배불을 비벼끄는 그의 손이 부르르 떨리었다. 그는 목갈린 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디다. 하지만 말간진 기계를 살리기도 힘든데 사람의 얼굴이야 더 말할필하겠습니카. 이제 마음쓰지 마십시오.》

막막하카 그제없는 딸의 앞길에 한점의 불꽃이라도 일출수 있다면 림익남동무는 기꺼이 자기 한몸을 불태울것이었다. 그런 아버지로서 딸의 앞날을 스스로 포기한다는것은 얼마나 가슴저는 일이었으랴. 그러나 오랜 료동계급의 량심은 딸이 공장의 무거운 짐이 되겠는를 바라지 않았다.

딸이 꺼져죽어 내지는 그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리촌일동무는 굳어진듯 서있었다. 이윽하여 그는 림익남동무의 손을 역세게 잡았다.

《민습시다. 우리 의사들! 위험에 처한 한 생명을 위하여 비행기까지 띄우는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리촌일동무는 의사가 아니였으며 의술도 못했다. 다만 근로인민대중이 하늘처럼 존대받는 이 땅에서 참된 로동자구대의 성실한 로동자처녀인 림송미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하며 그가 기꺼이 불행해 가기도 자기 얼굴을 되찾게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신념을 간직하였을뿐이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공장중업원들앞에서 당조직을 대표하는 일꾼인 자신이 필요하였었다. 설사 아버지는 딸을 포기한다고 해도 초급당비서인 그 자신은 자기 중업원을 절대로 포기할수 없었다. 그는 송미네 집에서 나와 옹골գ볼한 골짜기를 내려면서 내 집을 얼마마다에 힘을 돌루며 마음속으로 억척같이 checked.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8년전의 그밤 한 당일군이 자신을 다잡으며 한 중업원처녀를 위해 걸은 험한

행복한 처녀로 다시 태어나고있었다.

공장 초급당비서 리촌일동무와 중업원 처녀 림송미사이엔 맺어진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초월하는 뜨거운 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한두마디만 더 하려고 한다.

한 대학에서 도시실장으로 사업하는 안해 김송희녀성이 도사구일로 평양출장을 떠날 때면 리촌일동무는 어김없이 전소리를 걸어 하였다.

《송미한테 꼭 들려보요.》

《다 알아요. 송미야 이제 우리 집식구가 되셔서 없잖아요.》

《아무렴, 당일군의 안해야 웅당 그레 야지.》

이런 당비서를 누군들 따르지 않으며 스텝없이 달려가던지 않을수 있으랴. 햇빛이 넘치는 아침 풍향으로의 출근길에 오른 리촌일초급당비서의 주위에는 항상 많은 로동자들이 모여들곤 한다. 무슨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고 가정잡사를 터놓고 하고 인종깊고 유포아적인 그의 말에 그저 좋아 귀가울이는 모양은 향기로운 꽃이 벌들어 날아든 모습같기도 하고 자로운 어머니주위에 자식들이 오묘조묘 매여달린 광경같기도 하다.

리촌일동무는 철산공의 팡부가정에서 성장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우리 나라야말로 료동계급의 세상이라는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야 로동자가 행복에서도 영광에서도 첫자리를 차지해야지.》

이것이 료동계급출신 당일꾼인 리촌일동무의 당시일정거였다.

하기에 그는 율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었을 때 원수님께서 지난해에 훌륭하게 태어난 어머니님께 놀이 평가하신 대판양의 어머니 정선영의 남편이 바로 우리 공장 중업원이라고 기대에 말없이 서있는 평범한 선민공에 대하여 자랑담이 말슴드리었으며 원수님을 모시고 공장일꾼들이 사진을 찍게 된 영광의 자리에서도 한 열에 서있던 혁명사적교양실 강사를 제대군인강사로 원수님께 아뢰고 그 자기 자리를 내어 그이의 바로 곁에 세워주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한성토록 못 있을 영광의 시각이 흐른 뒤 제대군인강사가 자기의 다음사리에 서서 자신을 찍은 초급당비서에게 미안함을 금치 못해하자 리촌일동무는 《제대군인강사인 동무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선 선전이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사진을 찍는것보다 더 기쁘요.》라고 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자연의 햇빛에는 그들이 있어도 우리 당의 따뜻한 사랑의 빛은 인간의 깊은 마음속까지 비쳤다. 그 빛은 선민공의 마음, 그늘진 심정에 더 밝고 따스하게 비쳐드나.

우리 원수님께서 잘못된 인생길에 들어섰던 부모님을 청춘사랑을 어머니손로로, 어머니마음으로 따스히 품어주고 행복한 가정까지 이루어준 금아군 가진로로동자구의 평범한 녀성당일군에게 초급당비서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써보달리 친필이 오늘날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무려뿐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이런 진실하고 열렬한 인간사랑을 지닌 어머니당일꾼들이 지켜선 일터와 마을들이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이루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 인민을 대하고 사랑하는 이런 당일꾼들을 굳게 믿고 이 땅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강성국가건설에 피와 땀,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치고있다.

이렇듯 자애로운 눈빛, 따스한 손로로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는 꼬마운 료동당의 품속에서 우리모두가 살고있다.

* * *

림송미에게는 수취가 하나 있었다. 이름과 같은, 전화번호로도 부족한 수취이다. 같이 입원생활하는 동급동무 처녀로부터 당중앙위원의 직급을 이르기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가슴이 찢어진 듯 수줍을 펼쳐보지만 산골군의 한 공장의 화상환자처녀가 자못 유명한 인물이라는 생각이였다.

취제가 끝난 후 우리는 얼굴을 다시 찾은 림송미를 그을 위해 8년세월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림현단과 리촌일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친들 담으로 하였고였다.

그러네 모든 수악하였다. 림송미는 일에서 혁신자가 된 다음 사진을 찍었다고 하였고 림현단과에서는 송미의 얼굴을 그려 아름답게 꾸며주었는데 이제 또 저의 생일을 잊어버렸으면 하는 기막힌 생각이였다.

그러던 송미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된 생일을 다시 찾은것이였다. 있을수 없는 하루가 저물어간 길은 밤에 송미는 가슴지리던 그 생일날에 모여왔던 동무들을 그려보며 속삭였다.

《오늘이 바로 나의 생일이야. 가장 기쁘고 행복할 생일!》

난 언제든 불행하지 않아. 내 생일은 더이상 서러운 날이 아니야. 평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일을 알고 축하해주고 그러는 사람들 내 생일을 위하여 초급당비서며 단장을

자랑찬 석탄생산성과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할 드높은 열의

지하막장들이 불도가니마냥 끓어 번진다

북창지구관 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

당의 전투적요소
를 높이 받들고 산
악같이 펼쳐나선
북창지구관 광련합
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기세는 더욱 고조
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광련합
기업소 석탄생산량이 지난 5일부
터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10일
부터 하루생산량은 뒷새전 하루
생산실적에 비해 1.2배로 뛰
어올랐다.

특히 17일에는 계획보다 수백
의 석탄을 더 화력발전소로 보내
주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행부름,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
으켜야 합니다.》

지난 20일, 화력발전소들과
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력발전
단위들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어린 물고기를 실은 자
동차들이 들어섰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을 받아
안은 일군들과 탄부들의 가슴에
있는 보답의 맹세가 차분차분
다녔다.

광련합기업소당위원회 지도
밑에 각 탄광들에서 집중적인
사상공세가 벌어지고있다.
석탄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
옹위하자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신념의 맹세가 실천으로 이어지
도록 화신으로 들어대는 사상
전의 집중공세는 지하막장들을

세차게 끓게 하고있다.
중전의 석탄생산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작전도
확고히 앞세워 화력발전이 대폭
늘어나는 현실조건에 맞게 체재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혁
명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련합기업소당, 행정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 내려갔다.
목표는 석탄생산을 1.2배,
1.3배, 1.5배로 계단식으
로 확대하여 더 많은 석탄을 화
력발전소로 보내주자는것이였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이 막장에
들어와 탄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힘있게 열어제
했다. 탄광의 석탄
생산이 많은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
에서는 일지적인
수준에서 보장하지 못하였다.
일군들과 탄부들은 가능성을 룬
하기에 앞서 무조건 해나야 한
다는 결사의 의지를 안고 달려
들어 운반능력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탄광의 석탄생산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사대의 공로로
높이 내세워주시는 로력영웅 우
원훈동무가 경중으로 사업하고
있는 3명이 앞서나가고있다.
화안탄광에서는 일군들이 석
탄중산투쟁으로 세차게 끓어번
지는 막장에 전투지휘소를 제하
고 제기되는 정황들을 제때에
처리하면서 탄부들을 오늘의 화
력발전장전에서 위
훈을 떨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2경의
탄부들이 불리한
조건을 유리하게 전
면시키면서 내세운 전투
목표를 그날로 수행
함으로써 석탄생산실
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은정에 찬탄을 표
하는 일군들과 탄부
들의 열의가 높아졌다.
뿐만아니라 경관위를 담당하고
있는 일군들과 초급일군들도 높
은 경의의식을 가지고 전투에 힘

단기 사회주의 경쟁과 실적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
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
한 높은 책임성, 양심적 태
도를 가지고 일터를 뛰
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탄광에서는 사회
주의 경쟁을 어떤 형식과 방
법으로 하고있는가.
주목되는것은 경쟁기간을
5일간으로 정한것이다.
이와 같이 단기경쟁을 조
직하여 10일 후에는 15일
을 주기로 하던 사회주의 경
쟁에 비하면 탄부들의 생산
열의가 높아졌다.
뿐만아니라 경관위를 담당하고
있는 일군들과 초급일군들도 높
은 경의의식을 가지고 전투에 힘



화력발전소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생산동력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남덕탄광 탄부들

커다란 실리로 하여 주목되는 아치형동발

물 수 탄 광 3 경에서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합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
이는데 함께 열의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광련합기업소 통수탄광 3경에서는 근 7년간
석탄생산과정에 못쓰게 되거나
지투리나 오는 동발나무를 모
조리 회수하여 재이용함으로써
국가에 많은 리득을 주면서도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7년전 이들이 동발트리작
업을 할 때 잘라버리던 자투리
들을 이어 다각형동발을 만들
었는데 이 다각형동발은 만
능한 리득을 주면서 석탄생
산을 정상화하고있다.

다각형동발은 자투리나무를
리용하였기 때문에 세운 모양이
다각형을 이루고있다고 하여
그렇게 불렀던 아치형동발은
토막낸 나무 15개 정도를 련
결하여 아치형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본래의 제형동발이
다각형동발과 구별하기 위해
아치형동발이라고 부른다.
아치형동발을 시공하자면 보
통동발을 시공할 때보다 2.5
배의 힘이 든다.
하지만 집반이능력은 제형동
발에 비해 5배이상 높다는것이
중요였다.

레를 들어 10㎡의 동발나무
를 시공해야 하는 제형동발
인 경우 한방에 한천은 동발은
전부 교체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치형동발을 리용하면
6개월이상 그대로 쓸수 있다.
비결은 토막나무를 련결하여
아치형을 이루는 데 있다. 시공이
끝나고 아치형을 이룬 토막나무
를 일단 지압이 걸리면 집반이

능력에 높아진다.
경에서는 지난해 6월경까지
여러차례의 막장시공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
부터 주요사들과 체재막장들
에 도입하였는데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면서 시
적으로 아치형동발을 먼저 받
아들이 어떤 사정에서는 해
를 넘기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체재막장에서 새 동
발나무를 거나 쓰지 않고 토
막나무를 다시 회수하여 재
리용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아치형으로 설계
되어 보기에 좋고 일정한 사
랑들에게 안전한감을 주니 탄
광의 다른 갱에서도 이들의
경쟁을 적극 도입하고있다.
흔히 탄광에서는 동발나무가
막장에 들어간만큼 석탄이
나온다고 한다.
이처럼 석탄공업부문의 모
든 일군들과 탄부들이 여러모
로 실리적인 아치형동발을 널
리 받아들이면 긴장한 광복
회를 넘어서는 발전속도도 석
탄생산을 높이고 나라의 귀중
한 산림자원을 적극 보호해나
갈수 있을것이다.

지난 시기 경에서 다각형동
발을 리용하여 수십경부의 름
기를 통해 출구온도와 같은
실리를 얻어왔던 오늘 모든
탄광들에서 이들의 경쟁을 본
받아 아치형동발을 적극 리용
한다면 방대한 동발나무에비
조성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집단을 위한 헌신

참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룡탄광 채탄 4종대
리영근동무와 그의 가정에서
꽃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았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
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
타나야 합니다.》

지난 3월 초 어느날, 교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리영근
동무는 아내인 박복희동무에
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고맙소. 당신이 오늘
후방집단을 하니 우리 중대동
무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이렇게 말한 하면서도 역시
인지 리영근동무의 얼굴은 그
리 밝지 못했다.
왜 그러느냐고 묻는 아내에
게 리영근동무는 울혜에 우리

집단을 위한 헌신

가정에서 패지기를 한쯤 생
산하여 지친후면 어떨것은가
고 물었다.
박복희동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축산을 대대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 것이다.
《당에서는 석탄생산을 더 늘
일것을 바라라고요. 이러한 때
당원인 내가 어떻게 해야겠소.
나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
님에 이 한몸 갚고야 되지 않겠
는지 나의 심정이요, 바치는것이
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
남편의 마음을 잘 알고있는
박복희동무는 중대후방사업은
자기 맡겠으니 석탄생산단
평행 내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그들은 겨울철
조건에서도 축산을 할수 있는
것을 보충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런 소행은 탄부들
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었다.

그 뒤에는 100여마
리의 오리로 우리에 놓았다.
날이 갈수록 떡이보장공
제로 하여 조건은 어려워졌
다. 그러나 리영근동무와 그의
아내는 무뎠던 식탁을 마주하
고 기뻐할 중대탄부들의 모습을
그리보며 힘을 내어 집집을
기르는 일에 불같은 열정을 쫓
그리 쏟아부었다.

그들은 마침내 수백kg의 돼
지고기를 생산하였다. 그후에
도 매달 정상적으로 지원사업
을 통해 크게 불났었다. 이
런 헌신의 날과 날들이 흐르는
과정에 그들은 축산을 시작한
지 아홉달만에는 가정에서 제
획한대로 1000kg의 돼
지고기를 탄광에 지원하였다.
그들의 이런 소행은 탄부들
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었다.

탄광에서는 석
탄생산을 높이기
위해 련결적으로
노력하고있다.
그것이 바로 탄부
들의 열의가 높
아졌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경
관위를 담당하
고있는 일군들과
초급일군들도
높은 경의의식
을 가지고 전투
에 힘

물심량면으로 성의껏 지원

이른새벽, 탄전에 흐르는 안개
를 헤치며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집을 나선다. 저지마
다 동발나무를 마련할 공구들
을 들고 큰길에 나선 녀인들의
수는 수백을 헤아린다.
이들이 바로
나라의 전력중
산의 위해 애국
의 마음을 묵묵
히 이어 오고있는
평범한 탄전의
녀인들, 특강부
명화동의 기둥
녀들중 하나이다.
이들은 최근
몇달사이만도
10여차례 걸쳐
탄광으로부터
수km 떨어진
곳에 올라 많은
량의 동발나무

탄전의 미더운 부사수들

탄광에서는 석
탄생산을 높이기
위해 련결적으로
노력하고있다.
그것이 바로 탄부
들의 열의가 높
아졌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경
관위를 담당하
고있는 일군들과
초급일군들도
높은 경의의식
을 가지고 전투
에 힘

우리 전선군장병들의 면전에서 애기봉등탑이 건설되고 《점등식》이 재개된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 보도

지금도 동족대결에 극도로 피눈이
난 남조선피괴들이 년달던시를
알고두고 앞
에서는 심리전용 애기봉등탑
건설과 《점등식》을 포기한다
고 선포하였지만 뒤에서는
반공화국심리전의 일환으로
등탑건설과 《점등식》을 재
개해보려고 광복
하고있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포기
한다는 선포가 한국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지이 악질적인 괴뢰수괴화
단체의 목사놈들은 당국의 비호
밑에 애기봉등탑 건설에 개
바라나와 저들끼리 《점등
식》이라는것을 벌려놓고있는
형편이다.

《애기봉점등식》이라는것은
중요의 랑을 쓴 구우보수제
거리들과 반동단체들이
괴뢰군부와 착당하여 이미
철거된 등탑자리에 《부리
스마스나무》라는것을 세
워놓고 오는 23일부터 매년
1월 6일까지 그 무슨 종교
행사를 하는 미명하에 우리
를 자극하기 위해 벌리는
일종의 심리전이다.

우리 군대는 남조선피괴들이
제 집안 의 어느 구석에서
무슨 짓을 벌려놓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곳도 아닌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그것은 우리 전선군장
병들의 면전에서
행위된 심리전행위를
벌려

바꾼해였다.
청와대의 노기에 찬 불호령이
쏟아져 자 금에맞은 괴뢰국방부
장관 한민규는 《자유와 평화를
전해하는 의미있는 랑》이
철거된대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과》를 내놓고
벌려놓는 비굴한 추태를
드러냈다.
지금 괴뢰군부호전파들이
매년 3월 부러 중전의것보다 더
높은 등탑을 건설할
계획을 공개해두고 반동종교
단체들이 《모교》를 벌려
놓고있는것은 반공화국심
리전의 일환으로 애기봉
등탑을 건설하려는 악
질적인 추태를 드러냈다.
우리 전선군장병들이 자기
면전에서

효능높은 약품개발사업에 큰 힘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원, 연구자들이 인민
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능높은 약품개발사업에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 한 령도자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부에서는 기술혁
명의 요구에 맞게 의학화
학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다.》

흔히 중년기 이후의 사
랑들속에서 관절아픔과
허리아픔, 걷기때가 오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뼈성진증과
불소이관염을 나타내는
증상이다.

《보건부에서는 뼈성
진증의 발병을 예방
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효능높은 약
품개발사업을
강화하여 주시라.》

이러한 령도자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부에서는 기술혁
명의 요구에 맞게 의학화
학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다.》

흔히 중년기 이후의 사
랑들속에서 관절아픔과
허리아픔, 걷기때가 오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뼈성진증과
불소이관염을 나타내는
증상이다.

《보건부에서는 뼈성
진증의 발병을 예방
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효능높은 약
품개발사업을
강화하여 주시라.》

우리 제도가 제일

비록 나이는 어
리지만 동무를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친다. 그
것을 본다면, 리
영근, 박복희, 서
현애, 장미동무를
비롯한 학생들의
모습도 기록하였
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김금주강습소
있게 대해주어 주
고자하는 민병
원에 입원하였을
때는 보약과
별식을 안고 매일
같이

